

양조에 걸쳐 적사의 연성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령사 판은 원대의 지원 연간에 개판된 것이다. 다양한 판본들을 수집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필사본으로 보충하였다.

필사본은 대부분이 응영(應永) 7년(1400)부터 정장 2년(1429) 사이에 관서(關西) 지방의 사찰에 의해 필사되었지만 고려나 중국에서 필사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사경된 것 외에 천평 14년(742) 하내국(河內國)에서 서사된 것이나 장우(貞祐) 연간(1210년대)에 중국에서 필사된 것도 있다. 나라(奈良) 시대 사경에는 그 당시의 훈점(訓點)이 기입되어 있고 일본의 고대 국어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고려 초조본에도 11세기 초의 한문의 훈독이 각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남선사 일체경은 선장사의 소장인이 있고 일부에는 천룡사(天龍寺), 영락사(永樂寺), 명주천녕장경(明州天寧藏經), 심왕부(審王府) 등의 많은 소장인이 있다. 선장사인은 수집한 후 일괄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선장사에서 수집하기 전에 보관되었던 소장인들이다. 특히 심왕부인이나 천룡사인은 고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왕부(審王府)인은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심왕으로 봉해지고 연경에 세운 서재인 만권당(萬卷堂)의 소장도서 일부로 보인다. 천룡사는 경주에 있는 절로서 삼국시대에 창건되었으나 신라 말 폐사되었다가 고려 때 증건되어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을 설치한 사찰이다. 천룡사라는 이름의 절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고 경주의 천룡사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 사경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의 천룡사로 추정된다.

남선사의 일체경은 고베의 선장사에 있던 것으로, 경장(慶長) 19년(1614)에 덕천가강(德川家康)의 명에 의해 옮긴 것이라고 한다. 선장사에 있는 강호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월암스님의 제자 무견화상이 스승을 대신하여 중국에 건너가 장경을 수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 다음 구주의 박다(博多)에 있는 경안(慶安)이라는 스님이 불법(佛法)을 넓혀 사은(師恩)에 보답하고 선장사를 위하여 경을 모았다는 응영 원년(1394)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대마도에 있는 것은 반야부 600권인데 안국사(安國寺) 본의 일부에 고려국 김해부호장 허진수(許珍壽)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중희(重熙) 15년(1046)에 인경(印經)한 것이

한·일 공동 디지털화 사업은
문화교류의 좋은 모델
2011년, 조성 발원 1000년
새 천년 꿈 여는 계기 될 것

라는 목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대마도에 전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전본들에 대해서는 유통본과 일부 복장본으로 추정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서지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 사업을 한·일공동연구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소장처와 남선사의 협조를 얻어 교토 하나조노(花園)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 중이다. 일본 내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귀한 자료를 선뜻 공개해준 하나조노대학측의 배려는 한·일문화교류의 좋은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대장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너무 적다. 해인사의 대장경은 목판이 남아있지만 강화도의 대장도감(大藏都監)이나 남해의 분사도감(分司都監)의 기능이나 판각 장소는 물론 서문 밖의 판당이나 해인사로 이운한 경로도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교정의 전모가 알려진 것도 일본에 남아있던 교장총록의 필사에 의해서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얼마 없고 중수본이나 복각본까지 합해도 수십 종에 불과하다.

몽고의 난에 의해 소실된 초조대장경이나 교장의 판목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부인사의 위치도 불확실하다. 아마도 우리는 역(逆)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개성에는 한번쯤 가보고 싶었다. 교장도감이 있던 대흥왕사나 왕실의 원찰이었던 현화사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다.

2011년은 초조대장경의 조성을 발원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의천 스님은 '천년의 가르침을 모아 천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2011년을 맞는 것은 또 다시 새로운 천년의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라는 이름으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행사가 초조대장경의 복원이나 새로운 통합대장경의 편찬, 대장경의 문화·학술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정보화 사회의 종교나 이념을 넘어, 국가와 민족을 넘어 미래의 새로운 장(場)을 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중립(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남선사 소장 고려본 초조대장경 판본을 디지털화 하고 있다. 왼쪽 페이지 사진은 초조대장경 판본 일부. 그래픽=최정근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들이 초조대장경 판본을 살펴보는 모습(왼쪽) 지난 4월 2일 열린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디지털 작업을 마친 초조대장경을 관람하고 있다(우).

국가·민족 초월 인류의 '지혜' 될 것



初周雉大藏經

“1000년의 지혜를 1000년의 미래로”

황금 돼지 · 황금 달마도 부처님 오신날 특별 보급 안내

일봉스님이 자신있게 내놓은 황금돼지 작품과 황금달마도 작품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백일기도 회향과 함께 순금 24K와 경명주사 금분을 섞어 정성들여 그린 작품으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해와 돼지는 삼신태몽이라 하였으니, 집이나 사무실에 소장해 놓으시면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대통, 만사형통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작품구입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개2리 939번지
관음사 일봉스님
전화 054)763-3110 / 휴대폰 011-508-3100
입금계좌
우체국 700443-02-056838 (예금주 하중렬)

※ 작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자에게 지급소지용 황금돼지 카드를 1장씩 드립니다.



황금 돼지 1호



황금 돼지 2호



황금 달마도 1호



황금 달마도 2호

황금 돼지
1호 크기 830mm × 60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고급액자 표구
2호 크기 630mm × 58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고급액자 표구

황금 달마도
1호 크기 910mm × 53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2호 크기 670mm × 52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